

## LS그룹, CI선포식 갖고 전기전자글로벌기업 도약

- 산업용 전기·전자 및 소재분야 전문기업으로 특화
- 고객들에게 리딩 솔루션(Leading Solution) 제공
- 중국 등 해외 전략지역 중심으로 신규 브랜드 적극 홍보



LS그룹이 3월 14일 삼성 동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국 내/외 고객을 모시고 LS브랜 드를 대내외에 알리는 CI선포 식을 가졌다. LS그룹은 이 자

리에서 그룹 주력 6개사의 사업시너지 창출과 신사업 적극 진출 등을 통해 LS를 “산업용 전기·전자 및 소재분야 전문기업”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서 구자홍 LS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객과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Leading Solution을 제공하고, 사회에 공헌하며, 임직원들의 꿈이 이루어 지는 기업이 되는 것”이 LS그룹의 미래 비전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회장은 ‘CI선포 이후 국내외의 다양한 Communication 채널을 통해 LS브랜드를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새로운 CI 선포를 계기로 산업용 전기·전자 및 소재사업 분야의



국내 1등 기업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맹형규 국회 산업자원위원장, 리빈(李濱) 주한 중국대사 등 주한 외교사절과 구본무 LG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을 포함한 국내/외 인사 5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에 대내외에 공표된 LS브랜드의 의미에 대해 홍보팀 관계자는 ‘CI의 화살표 모양은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기업의 강한 의지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무한 성장기업’을 나타내며, ‘Red Color는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Blue Color는 투명성과 건실함을, 그리고 심볼의 부드러운 Line은 고객을 생각하는 “LS”의 마음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LS그룹은 CI선포식 이후 TV-CF를 비롯 인쇄광고를 중심으로 LS브랜드를 런칭(Launching)키로 했으며, 국내는 물론 해외 전략지역인 중국, 인도 및 중동시장 등에 LS브랜드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게 되는 LS그룹은 LS산전, LS전선, LS-Nikko등제련, 가온전선, E 1, 극동도시가스 등 주력 6개사를 포함 총 17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 8조 7,000억원, 영업이익 5,000억원의 실적을 올렸고, 자산 5조 7,000억원으로 자산기준 국내 민간기업 중 15대 그룹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LS산전의 차세대 PLC XGT Series

- 0.028 $\mu$ s/step 의 국내 출시 제품 최고수준의 CPU 처리속도
- Open Network 기반의 시스템 솔루션
- 동급 최소 사이즈의 Compact Panel

LS산전은 3년간의 연구 끝에 명령 처리 및 내부 통신 전송속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한 차세대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PLC)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LS산전이 자체 개발한 초소형 연산처리장치(MPU)를 탑재하여 업계 최고수준인 0.028 $\mu$ s/step ( $\mu$ s:백만분의 1초)의 명령 처리속도를 실현하였다. 이는 1건의 명령을 처리하는데 10억분의 28초가 걸린다는 의미로 가장 빠른 처리속도의 외산 제품보다도 개선된 속도이다.

또한 16bit 고속전송 알고리즘 개발을 통해 내부 통신모듈간 전송 속도를 기존제품 대비 최고 100 배까지 개선하였다.

동급 최소 사이즈로 제작되어 생산현장에서의 공간 활용도를 높인 XGT는 Compact Panel (모듈크기 27\*98\*90)제작을 통해 제품 원가절감 및 다양한 Application 분야에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LS산전의 XGT Series는 업계 Trend 인 Fast Ethernet 기반의 PLC 네트워크 구성 및 가장 널리 적용되는 오픈형 필드버스 지원으로 Field Control 에서 상위 정보처리 레벨까지 완벽한 Open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기능의 향상과 함께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친화적인 Engineering 환경을 제공한다.

기본 프로그래밍 에서 각종 특수기능 모듈의 설정 및 진단까지 통합 Engineering 환경을 제공하는 XG Software Package는 PLC 프로그래밍을 위한 XG5000, 통신설정 및 진단을 위한 XG-PD, 위치제어를 위한 XG-APM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 개의 PLC 연동을 통한 동시 편집, 관리를 위한 MPMP(Multi PLC Multi Programming)환경의 XG5000은

Windows 기반의 편리한 조작을 통해 다양한 모니터링 및 진단 기능이 서비스 된다.

이외에도 특정 디바이스의 사용자 정의 조건 만족 시 데이터를 Logging하고 이력을 열람할 수 있으며, 모듈교환 시 마법사 기능을 통해 안전하게 모듈을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3월 KOPA전시회(2005년 3월 9일)에 맞춰 적극적인 마케팅을 시작한 LS산전은 자체 기술력을 집결하여 개발/출시한 이번 XGT Series가 국내 PLC 시장을 한 단계 향상시킬 것이라 전망했다.

## 現代重, Middle East Electricity 2005 참가

- 중동 최대 전기전문전시회인 두바이전시회에서 큰 호응 받아
- 중동 지역 인지도 제고 및 판매 확대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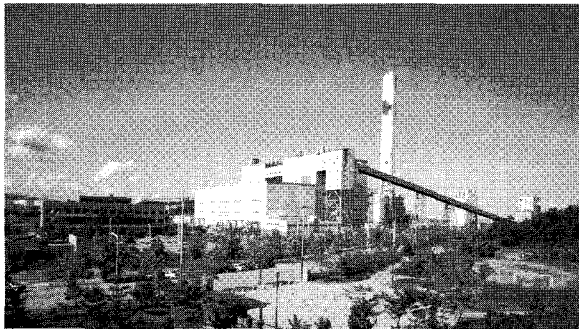
현대중공업은 UAE의 Dubai World Trade Center에서 개최된 "Middle East Electricity 2005"에 참가하여 현지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3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최된 "Middle East Electricity 2005"는 29년의 역사를 가진 중동지역 최대 규모의 전시회로 47개국에서 700여 회사가 참가하여 큰 성황을 보였는데, 중저압차단기와 인버터를 전



시한 현대중공업 부스에는 연일 방문객이 줄을 이을 정도로 큰 호응을 받았으며,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중동 지역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동해화력, 제2호기 500일 무고장운전 달성



한국동서발전(주) 동해화력발전처 제2호기가 23일부로 500일 무고장 운전을 달성했다.

동해화력은 이번 제2호기 500일 무고장 운전 달성으로 1998년 10월 제1호기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래 1, 2호기 각 2회씩의 500일 무고장 운전 달성하게 되었다. 동해화력 제2호기는 지난 2002년 12월 한차례 500일 무고장 운전을 달성한 바 있다.

특히 동해화력은 세계 최초이자 최대의 유동층 보일러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소로서 벤치마킹 할 대상이 전혀 없는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를 이루어 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2호기 500일 무고장 운전 달성은 동해화력과 협력사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안정적 설비운영의 Know-how개발과 철저한 예방점검, 정비에 노력을 경주한 끝에 이루어낸 결과”라며, “회사 중기 경영목표인 ‘ACE 2007’의 조기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노사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설비운영과 유지정비를 완벽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서부발전, 발전연료 유관업체 간담회 실질협력 네트워크 구축 계기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18일 정유사, 선박회사, 유연탄 공급사 등 대표 10명을 초청해 ‘Clean 서부를 위한 발전연료 유관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종훈 서부발전 연료팀장은 서부발전의 경영 사업현안과 윤리경영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업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전력그룹사의 최대 현안인 원전 수거물 처분장 건설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등에 대해 소개하고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서부발전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설명하고 유관업체의 건설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 100kW급 용융탄산염형(MCFC) 연료전지시스템 시운전 개시

전력연구원과 중부발전(주)이 공동개발 중인 100kW 용융탄산염형(MCFC) 연료전지 단지가 보령화력본부 제3발전소(복합) 부지 내에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001년 4월부터 전력연구원 주관으로 추진되어 2004년 6월 실증연구를 위한 시작품 설치 착수로 본격적인 신재생 에너지 신기술개발 및 실용화에 전기를 마련하였다.

100kW용융탄산염형(MCFC) 연료전지시스템 개발기간은

2001년 4월~2005년 6월 까지 약 52개월 소요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72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우리 회사도 연료전지 시운전 분야에 인력을 파견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신기술개발에 있어서 남다른 열의를 보이고 있다.

성공적인 최초 NG 가압(2월 22일)을 시작으로 단위기 시운전에 돌입하여 2005년 6월까지 종합시운전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전력연구원은 100kW 용융탄산염(MCFC) 연료전지시스템 신뢰성운전 완료 후 설비 활용계획은 없으나, 장기 연속운전을 고려중이고 향후 250kW 분산전원용 연료전지시스템 개발과제는 발전5사가 참여 개발할 예정이다.

연료전지 발전방식의 기본원리는 물의 전기분해와 반대되는 반응, 즉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와 물을 발생시키는 발전 장치로서 수소는 천연가스, 석탄으로부터 얻고 산소는 공기로부터 얻을 수 있다. 연료전지 발전방식은 연료가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를 직접 전기화학 반응에 의하여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킨다. 연료전지 발전방식은 고효율 저공해 발전방식이다.

## 한수원, 한국표준형원전 해외명칭 'OPR 1000' 변경

한국수력원자력은 그동안 사용해온 한국표준형원전(KSNP)의 해외용 명칭은 OPR 1000으로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한국전력공사 등 해외 원전사업 관련사로 구성된 '제3차 해외 원전시장 진출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표준형원전 명칭을 원전 해외수출에 맞춰 범세계 시장용 브랜드로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OPR 1000은 'Optimized Power Reactor 1000'로 기존 한국표준형원전의 우수한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발전소 배치와 시공물량을 최적화해 경제성을 높인 원전이라는 특징이 잘 표현됐으며 부르기 쉽고 친근해 해외 경쟁원전의 이름과 견주어 손

색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같은 결정에 앞서 한수원은 최근 국내 원자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공모한 결과 총 373편 중 OPR 1000을 추천받아, 진출추진위원회에서 이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는 "한국표준형원전은 OPR 1000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가지고 세계 원자력시장으로 진출하게 됐으며, 세계 원전시장 특히 한국원전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에게 친숙한 이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피력했다.

## 효성, 對 중국 전시마케팅 강화

- 중국 사업장 본격 가동 발맞춰 기업이미지 제고 차원
-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기능성 차별화 원사 대거 선보여

세계 화섬 리더기업인 효성이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패션대전(Preview In Shanghai, PIS)'에 대규모로 참가함으로써 전시회를 통한 중국 현지 마케팅을 강화한다.

효성의 이번 전시회 참가는 최근 중국 내 사업장이 10여 개 이상으로 늘어남에 따라 중국 내 효성 및 제품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효성이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이는 제품은 항균 스파덱스인 C-100B, 원단의 변색 방지 및 형태안정성이 뛰어난 C-400, 신축성 섬유인 제나두-55(Xanadu-55),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難燃性) 섬유인 파이렉스(Firex), 땀을 빨리 흡수하고 빨리 건조 시키고 동시에 은을 포함해 뛰어난 항균력을 보유한 에어로 실버(Aero Silver)를 비롯 아쿠아-에프(Aqua-F), 나노-매직실버(Nano-Magicsilver) 등 기능성이 뛰어난 제품들이다.

이러한 고기능성 차별화 제품들은 세계적인 화섬업체인 효성이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한 것으로 한국을 비롯 유럽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효성은 기능성 원사 및 직물 등 섬유제품 외에도 효성에서 생산하고 있는 화학, 중공업, 정보통신, 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들도 소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효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나일론 원사로 만든 에어백, 스판덱스가 사용된 지저귀, 맥주 페트병, 온장고용 페트병, 필름 포장재가 들어간 식품 포장용 제품, 세계 최초로 개발한 PTT(폴리 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 Poly Trimethylene Terephthalate) 카펫, 산업용 원사로 만든 안전벨트를 비롯, 변압기, 건축 외장재, 타이어코드, ATM기(Automated Teller Machine), 이파트와 오피스텔 등의 그룹 내 주요 제품들을 소개한다.

효성은 지난 97년 북경에 페트병 공장을 세운 것을 시작으로 대 중국 투자를 지속해 왔으며, 지난 2004년 스판덱스(자싱, 주하이), 타이어코드(자싱), 변압기(바오딩), 스틸코드(칭다오), 나일론필름(자싱) 등 중국 내 주요 사업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효성은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중국 및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중국 현지화에 성공한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확립시킬 계획이다.

## 남부발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MOU체결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3월 22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최익수 / KIER)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사업화 상호협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최근 급격한 유가상승과 교토의정서 발효 등 국제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경제성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남전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상호 협력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사업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남전과 공동으로 제주 한경풍력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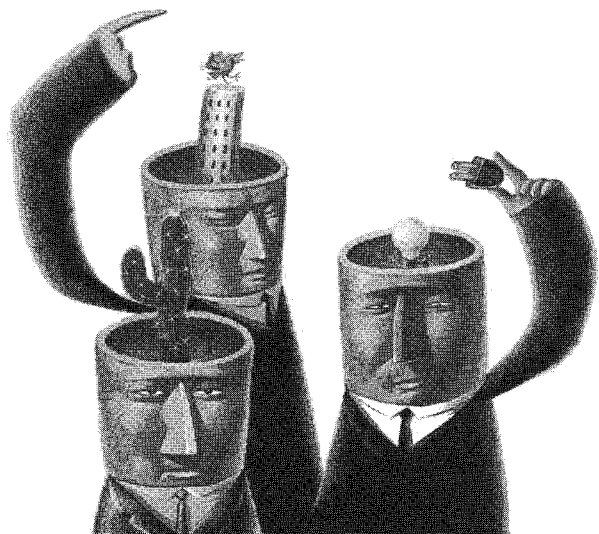
성산풍력, 강원 태백풍력의 풍력자원 및 타당성조사를 수행한 바 있는 신·재생에너지분야 전문 국책연구소이다.

남전은 지난 3월11일 일본 전원개발(J-Power)과의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을 위한 국제 사업협력 MOU체결에 이어, 국내 신·재생에너지분야 전문 연구소와 기술협력 MOU체결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선도적 기업의 위상을 공고히 하게 되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

한국지역난방공사는 3월 22일 기획예산처가 75개 정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고객만족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기획예산처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동안 해당 산하기관을 이용한 일반인 4만 42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우리 공사는 산업자원부 산하기관 중 1위, 개인을 고객으로 하는 기관, 금융 수익 기관 중 2위로 선정되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 시행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산하기관의 서비스품질과 국민불만요인을 객관적으로 조사해 그 결과를 경영성과에 반영하고자 처음 실시된 것으로, 업무처리 과정, 시설·환경, 공익활동, 서비스 결과물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도 지역난방공사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고객만족경영을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 두산중, 기술홍보 위한 영문 '테크니컬 저널' 발간

두산중공업이 대내외 기술 홍보를 위해 3월 16일 영문 '두산 테크니컬 저널(Technical Journal) 창간호'를 발간했다.

두산중공업이 이번에 발간한 테크니컬 저널은 직원들의 각종 연구보고서 및 기술 논문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

난해부터 운용하고 있는 기술논문은행에 1년 동안 모인 자료 중 우수 논문을 선정해 기술자료집으로 제작한 것이다.

이 논문집에는 제4세대 원자력발전소용 증기발생기 설계특성 등 11편의 최신 기술 정보가 담겨 있고, 특히 논문제작에 참여한 직원들의 연락처가 소개되어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했다.

두산중공업 CTO 윤종준 부사장(기술연구원장)은 "이러한 독자적인 기술논문 저널 발간은 사내 직원들에게는 정보 공유를, 그리고 대외 고객들에게는 회사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된다"며, "두산중공업은 앞으로도 매년 두산 테크니컬 저널을 발간해 국내외 고객들을 중심으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두산중공업은 지난해부터 직원들의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각종 논문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술논문은행을 개설해 지난 한해에만 100여편의 기술자료들을 모았으며, 우수 논문 작성자에게는 포상차원에서 부부가 함께 해외 학술대회 및 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